

## 연합의 축복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이 잠들 무렵, 한 아들이 랍비에게 와서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래서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편이 훨씬 나은 거란다."

화목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 사랑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한 2023년,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한 자리에 모였으니 자기 자랑과 헐뜯는 말은 줄이고 서로를 배려할 때 따뜻하고 복된 추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시편 133편에서 잘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세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은 세력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세력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열두 개의 지파로 이뤄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갈라진 마음을 달래 연합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통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연합을 추구함으로써 화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러한 배경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전쟁을 치르며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미움과 상처를 넘어선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를 회개할 때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고 소망과 사랑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임했던 이와 같은 연합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20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볼 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기보다는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연합을 이루고 우리 안에 하나 됨의 축복을 누리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비록에서는 또 이같이 행하시 나라 안에 감동과 사랑을 부어 그 영광 세 천년에 계고 영의 오분의 일을 가두리  
그들로 양자 품 용난의 모든 세물을 가두고 그 귀를을 배의 손이 놀리 양식을 위하여 각 성중에 열아 두어 하소서 (창 41:34-35)

*Action in Waiting!*  
말씀과 사랑을 준비하는 교회 (041-34-35)



대 | 한 | 예 | 수 | 교 | 장 | 로 | 회 |  
**AQ 제주성안교회**

(63236) 제주시 중앙로 470 [www.jeuseongahn.org](http://www.jeuseongahn.org)

전화 : (064) 745-9191 , 팩스 : (064) 745-9192

## ■ 추 석 가 정 예 배 ■

### 1. 개 식 사 ..... 인 도 자

추석 명절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석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 2.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3. 찬 송 ..... 찬송가 588장 ..... 다 같이

- 1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 2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절.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 4. 기 도 ..... 가족대표

### 5. 성경말씀 ..... 시편 133편 1-3절 ..... 다 같이

-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6. 설 교 ..... 연합의 축복 ..... 말 은 이

※ 인도자가 뒷면 설교란을 천천히 읽습니다.

### 7. 가족기도문 ..... 가족이 함께

※ 설교문 낭독 후 예배에 참여한 자가 함께 축복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명절에 함께 모여 가족  
의 정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남은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  
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더욱 아끼고 보살피며, 자녀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넉넉  
한 한가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8. 찬 송 ..... 찬송가 559장 ..... 다 같이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 9.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